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 목회, 그리고 선교

: 새로운 시대의 기회와 도전

들어가는 말: 인공지능이 교육, 목회, 선교에 가져오는 변화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은 교육과 기독교의 영역에서 심대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이 교육, 목회, 선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이러한 기술의 도입이 제기하는 교육적, 신학적, 실용적 도전 과제들을 탐구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독교 교육: 맞춤형 신앙 교육의 가능성

- 기독교 교육의 목적:** 인공지능 중심의 교육을 넘어, 기독교 교육의 핵심 목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¹ 이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내적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² 이러한 과정은 성경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신앙생활에서 실천적 삶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항목	인공지능 중심 교육 목표	기독교 교육의 목표
영성 이해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학습, 정량적 분석 및 규칙 기반의 이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형성, 신앙의 내면적 성장.
인간 이해	인간 행동 및 심리적 패턴을 분석하여 예측.	성경적 인간 이해에 기반한 존재 목적의 발견.
관계 이해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분석.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강화, 사랑과 헌신 실천.
신앙 이해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이해를 모방하고 적용.	신앙적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체득.
실천적 삶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천적 행동을 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천.

¹ 김난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영적 민감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06집 (2017:10): 292-3.

² Paul Tillich, 『조직신학 III』, 유장환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5), 276.

- **맞춤형 신앙 교육:** 인공지능 기술은 기독교 교육에서 개인화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통합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와 학습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신앙을 보다 깊이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³ ChatGPT 같은 인공지능은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며, 신앙의 내적 성숙을 촉진한다.
- **멀티미디어 도구 활용:** 인공지능은 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다.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로 성경 속 사건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학습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⁴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도 시청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하여, 신앙적 경험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특히 디지털 세대의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도구들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³ 이수인, “챗GPT 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가.” 김규섭, 김학봉, 이수인, 유지윤, 전희준,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울: 뜰힘, 2023), 146. Gordon Vaill Barrows,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Online Education for Recruitment, Retention, and Sustainability of Religious Organizations” (Doctor of Education. Diss., Liberty University, 2024), 19.

⁴ 권일혁, “ChatGPT로 열린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83.

2. 인공지능을 활용한 목회: 보다 전문적인 교육 목회로 나아가기

- **설교 준비를 돕는 인공지능:**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성경 원어 분석과 다양한 자료의 요약을 통해 설교 준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목회자가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⁵ 이를 통해 목회자는 성경의 신학적 깊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기능은 목회자가 신학적 통찰을 더 풍부하게 담아내어 성도들에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원천이 된다.⁶
- **교육 목회에서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은 성경 공부 자료의 제작과 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하며, 학습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교회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한다.⁷ 이를 위해 목회자와 교사는 인공지능의 원리와 이해, 교육 환경 준비, 교육 과정 구성과 설계, 데이터 분석 능력, 신앙교육의 효과성 평가 등 신앙교육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⁸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목회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인공지능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초연결 학습 환경을 통해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미래 지향적 접근을 통해 교육 목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⁹
-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있어 기독교 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윤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¹⁰ 더불어 기독교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배력과 윤리적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웃과 정의로운 공동체의 삶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¹¹ 궁극적으로 목회자는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⁵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7권 (2020): 107.

⁶ 이길용,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 교회의 역할,” 『신학과 선교』 66집 (2023: 9): 92, 94-95.

⁷ 옥장흠, “인공지능 챗GPT의 교육목회에 효율적인 활용방안,” 『기독교교육논총』 78집 (2024:5): 80.

⁸ 신국원, 김희석, 함영주, 김수환, 『AI의 파도를 분별하라』, (서울: 익투스, 2024) 148-165, 189.

⁹ Ibid., 191.

¹⁰ 김동환,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그리고 교회의 과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23:9): 26.

¹¹ 신국원, 김희석, 함영주, 김수환, 137.

바탕으로 기술의 활용을 지도하며, 인공지능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



3.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 새로운 기회와 문화적 접근

- **복음의 접근성 확대:** 인공지능은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기술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한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¹² 다양한 문화권과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에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지리적 및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더 넓은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한다.
- **디지털 친화적 복음 메시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전략은 그들이 익숙한 디지털 매체와 친화적인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¹² 최원진, “인공지능 시대 가상공간을 통한 이슬람 선교,” 『복음과 선교』, 64집 (2023:10): 371-374.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성경, 영상 자료, 성경 배경 지도,¹³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짧은 복음 메시지, 줌(Zoom)을 통한 성경 공부,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한 신앙 토론 등은 디지털 세대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 영상 콘텐츠, 온라인 포럼, 가상 모임을 통해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며, 복음에 쉽게 접근하게 된다.¹⁴ 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디지털 환경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선교 방법론:** 인공지능 시대의 효과적인 선교 방법은 디지털 기술과 가상 공간에서 상호 작용을 할 메타버스의 활용이다. 이러한 매체들은 선교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다.¹⁵ 이러한 접근을 통해 특정 지역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음 메시지를 설계하고, 선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교의 질적 성장을 높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더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다.



¹³ 김경식, “디지털 시대의 기독교교양학 수업,” 『대학과 선교』, 58집 (2023:11): 83.

¹⁴ 홍영기, “한국의 온라인 교회와 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 『복음과 선교』, 66집 (2024:5): 275.

¹⁵ Ibid., 276-279

나가는 말: AI를 활용한 새로운 신앙 교육과 선교의 미래

인공지능은 신앙 교육과 선교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며, 접근성과 개인화를 극대화하여 깊은 신앙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반드시 윤리적 기준과 신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보조하는 역할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과 선교에서 인공지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명성, 공정성,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의 기능과 한계를 신앙생활에 적절히 적용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실천 방안들을 통하여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교육, 목회, 선교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신앙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삶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참고 문헌

권일혁. “ChatGPT로 열린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김경식. “디지털 시대의 기독교교양학 수업.” 『대학과 선교』. 58집 (2023:11): 59-91.

김규섭, 김학봉, 이수인, 유지윤, 전희준. 「챗 GPT 목사님 안녕하세요」. 서울: 뜰핌. 2023.

김난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영적 민감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106집 (2017:10): 283-312.

김동환.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그리고 교회의 과제.” 특집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23:9): 20-27.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7권 (2020): 82-116.

신국원, 김희석, 함영주, 김수환. 「AI의 파도를 분별하라」. 서울: 익투스. 2024.

옥장흠. “인공지능 챗 GPT의 교육목회에 효율적인 활용방안.” 『기독교교육논총』 78집 (2024:5): 57-85.

이길용.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 교회의 역할.” 「신학과 선교」, 66 집 (2023: 9): 77-103.

최원진. “인공지능 시대 가상공간을 통한 이슬람 선교.” 「복음과 선교」. 64 집 (2023:10): 359-396.

홍영기. “한국의 온라인 교회와 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 「복음과 선교」. 66 집. (2024:5): 259-294.

Tillich, Paul. 「조직신학 III」. 유장환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5.

Barrows, Gordon Vaill,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Online Education for Recruitment, Retention, and Sustainability of Religious Organizations” (Doctor of Education. Diss., Liberty University, 2024), 19.